

Panel Discussion 주요 내용

1. Panel Session 개요

개요

- 주제
 - 글로벌 ESG 측정 표준화 추진 방향

□ Talking Block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Talking Block 3
향후 논의 전개 및 추진 방향성

참석

참석자	소속/직책
 장용석 (Moderator)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장지인 (Panel)	•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명예교수
 김의형 (Panel)	• 한국회계기준원장
 류영재 (Panel)	• 서스틴베스트 대표
 강동수 (Panel)	• SK SV위원회 부사장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장용석 교수

- (Opening) Panel Session에 앞서 많은 분들이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기업이 자기들의 활동을 비재무적인 정보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 보았음.
- 'Total impact measurement management', 'Impact Valuation', 'Impact based economy', 'Intangible based economy' 등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ESG 관련 기업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지금 새롭게 맺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임.
- 그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측정 표준화, 그리고 화폐 가치화 등의 내용들로 얘기를 해보고자 함.
- 지금까지 ESG 측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 측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ESG의 Value 또는 Impact에 대한 측정을 표준화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얘기 해보도록 하겠음.

류영재 대표

- 투자자 관점에서 ESG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본인이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2004년도 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 언론 검색에 ESG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 백개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함. 다만 이런 것들이 단순 일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 먼저 ESG에서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factor를 의미함.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은 Financial Factor 위주로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점점 ESG Factor를 잘못 관리하는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됨에 따라 일종의 Contingent Liabilities, 우발채무 성격의 큰 Risk Factor로 등장하게 됨. 연기금과 같이 Long-term Investors에게는 ESG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점점 Mainstream化 되어가고 있음.
- 투자자는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ESG 관점 Approach를 통한 Impact Investment가 있고 Sovereign Wealth Funds, Endowment Fund 등 Mainstream Investment가 있음.
- 투자는 고려하고자 하는 Factor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됨. 그래야 표준화된 어떤 방법론 및 Framework에 기반하여 평가할 때, Factor 간 비교 가능해지고 어느 Factor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결국 이를 통해 Actual Portfolio로 가면서 시장의 알파를 창출 하고는 것이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ESG측정은 '투자의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음.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강동수 부사장

- 기관투자자들은 ESG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이 가능한 반면, 개인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등 재무정보 수준으로 투자 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음. ESG와 관련된 정보들도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화폐화로 전달 해야지 정보비대칭성이 없어질 것임.
- 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해야하고 혁신의 주체는 구성원임. 구성원들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면 화폐화가 가장 용이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좋은 일하는 착한 기업이 언론에 나오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ESG 관점에서 잘하는 기업 또는 못하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화폐화가 용이할 것임.
- 기업들이 ESG 관련 공시를 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 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스스로 ESG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ESG표준화와 화폐화 측정이 필요함.

장지인 교수

- UN이 ESG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시기가 2006년이었고 그 당시 ESG 시장규모가 \$6.5조 정도였다면 작년 6월 기준에는 \$80조임. Financial Times 기사에는 2025년 유럽 내 전통적인 펀드 수보다 ESG펀드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측함.
- ESG 투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ESG 정보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짐. 그런데 ESG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ESG 정보 생태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회계 생태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함. ESG 기준을 만들고 있는 조직이 너무 많은데 2015년도에 OECD 연구에 의하면 400개 정도 조직, 70개국에 걸쳐서 260개 이상 ESG Standards가 존재함.
- 기준의 수 뿐만 아니라 기준 간의 내용도 천차만별임. 기준을 들여다보면 GRI, SASB 등 ESG를 모두 커버하는 기준들도 있지만 환경, 기후변화 등 특정 이슈에 대한 기준서들만 제시한 그런 기준들도 많기 때문에 기준의 수 뿐만 아니라 내용과 성격도 큰 차이가 있음. 더불어 Indicators도 다르고 Scope도 다르고 Target Audience도 다름.
- 그리고 자발적 공시 정보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Assurance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결국 ESG 투자 시장의 문제는 비교가능한 ESG정보가 재무회계정보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ESG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있고 이게 공급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
- 그래서 ESG 기준을 IFRS와 같은 High Quality Global Standard를 통해 수립하게 되면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고 ESG 투자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최근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Global Standards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이건 당연한 일임.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김의형 원장

- ESG 정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ESG 투자자 금융 등이 확대되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양적인 수요 확대에 따라 풍부한 정보가 필요함. 더불어 질이 좋은 충실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통일성 있는 정보, 일반성 있는 정보의 의미임.
- 이런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표준화된 정보는 시장의 니즈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한테서도 필요함. ESG 통합 보고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은 누구 위한 보고냐 인데 누가 Primary User냐에 따라서 표준화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표준화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IFRS와 같은 고도의 표준화된 단일 국제기준처럼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회계쪽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Poll 진행

Q1) 어떤 이해관계자(User)에게 ESG 화폐화 측정 및 표준화 가장 유용할지? Primary User는 누구인가?

1) 투자자 : 19표 2) 정부(규제/감독기관) : 3표 3) 기업(구성원) : 3표 4) 협력사 : 0표 5) 소비자 : 1표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용석 교수

- ESG표준화를 단계별로 본다면 첫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측정하는 Indicators를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가 이고 두번째는 한단계 더 나아가서 화폐화를 통한 통분화에 대한 이슈가 있음.
- 측정의 표준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려운 부분 또는 개선방안은?

김의형 원장

- 중요한 주제임. ESG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표준화 해야하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 해봐야함.
- 표준화를 가지고 크게 두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음. 첫번째는 ESG 보고에 들어갈 내용이고 두번째는 보고 단위에 대한 표준화임. 회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단위는 중요하다.
- 보고 내용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보고 하고자 하는 Agenda를 표준화해야 함. 예로 기후변화, 수질오염, 쓰레기 배출, 플라스틱 등이 있음. 여러 Agenda 중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우선시 되어야 할 것과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및 합의가 있어야함.
- 보고 단위는 기업에 대한 연결 기준인지 개별기업 기준인지가 중요함. ESG 보고도 마찬가지로 지분 관계에 있는 투자를 한 회사로 볼 것인지 별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더불어 Supply Chain을 통합해서 보고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함. 우리한테 납품하는 외주업체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임. 이러한 문제를 Supply Chain에서 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표준화의 중요한 화두임.
- 표준화가 가능할 것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No 둘 다임. 두가지 답을 드리는 이유는 ESG 보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Base는 투자자 그룹을 통한 녹색금융, ESG투자에 대한 압박이고 이러한 압박들이 시장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약 각국의 입법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가별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통합이 잘 안될 것이란 걱정이 있음.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지인 교수

- 표준화를 얘기하기 위해 회계 쪽에서 경험한 좋은 사례가 있음. IFRS는 Global Standard를 만들기 위해 IASC라는 회계사 전문가들 단체가 만든 기구임. 전 세계 회계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1973년도에 설립 되었고 통합 노력을 지속 해오다가 2001년도에 지금의 IASB조직으로 바뀌면서 IFRS라는 Global Standard로 통합이 됨.
- IFRS를 채택하는 국가가 140개인데 Global Standard로 안정화 되기 까지 약 40년 걸림. 회계에서 재무제표 정보 외의 정보를 비재무정보라고 하고 단순히 ESG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ESG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을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크고 어렵고 방대한 과정임.
- 지난 수년간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님. 그동안 ESG 정보 기준이 난립되어 있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Corporate Reporting Dialogue(CRD)가 2014년도에 구성 되었고 IASB 포함 8개 조직이 참여 중임. 지난 2년 동안 CRD에서는 Better Alignment Project를 진행했으며 기준 간의 차이가 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TCFD의 기후변화 공시 기준을 가지고 해보니까 기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김.
- 논문이나 신문기사에서도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019년임. 이때 VBA도 기업체 Initiative로 출범했고 IFRS를 사실상 창출하게 된 IFAC(국제회계사연합회)에서 ESG 기준의 Global Standard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IFRS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속에 IASB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면 좋겠다고 Recommend하여 올해 6월 IFRS재단이 표준 재정 역할을 해보겠다고 발표함. 9월에는 WEF IBC와 Big4 회계법인이 협력하여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안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Global Standard의 한 예를 제시한 것임. 그리고 400개가 그런 재정 기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개 기구가 Global 표준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IFRS재단에서 표준 재정 역할을 하게 되면 지지하겠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 IFRS재단이 지난 9월 Consultation Paper를 Release하여 연말까지 의견수렴 중임. 이런 과거의 노력들이 Pandemic을 전후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여겨짐. 특히 VBA와 같은 기업 연합이라든지 IFRS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공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근데 문제는 통합을 하는데 있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음. 재무정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재무회계 정보를 통합할 때는 각국마다 다른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ESG 정보는 국가 단위도 아니고 개별조직체의 이니셔티브가 400개나 존재함. 통합을 하려면 통합의 주체가 있어야하는데 이 주체는 결국 가장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IFRS 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임. 다만 GRI 같은 경우 적용하는 기업 수만 해도 6천개가 넘고 S&P 500대 기업의 40% 정도가 GRI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걸려있음.
-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표준화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됨. 표준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 큰 과제라 생각이 들고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함.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류영재 대표

- 표준화 관련 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함. 영국의 Trucost라는 회사는 2008년도에 \$2조2천억 정도의 External Cost가 발생했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였음. 그 해에 기업들이 \$6조 순이익을 냈는데 1/3 정도 되는 비용을 외부화하는 Input-Output 모델을 개발했고 700개의 환경 물질을 화폐화해서 발표한 시도임. Trucost는 S&P에 인수되어 운용되고 있음.
- 문제는 S하고 G임. Governance는 Stakeholder Capitalism 관점에서 Governance가 있고 Shareholder 관점에서의 Governance가 있으며, 나라마다 거버넌스의 상이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재벌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나라이고, 영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G를 어떻게 Define하고 Scope을 정할것이냐는 표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 여겨짐. Mainstream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버넌스인데 좋은 기업이 Finance Return이 좋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Governance에 상당한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지만 측정이 쉽지 않다고 봄. Social 부분도 많은 이슈가 있음. ESG나 CSR이 유럽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유럽의 Norm과 Culture를 많이 반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은 CSR, ESG에서 Animal Welfare 및 Human Rights의 수준이 높는데 과연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 사회적 Consensus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강동수 부사장

- 대부분 표준화에 동의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다 말씀하시는데 기업입장에서 화폐화 측정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Risk임. 그럼에도 하려는 이유는 결국 ESG 기반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실함이 있음. IFRS가 40년 걸렸다 하셨는데 IT 시대에 기술 발달에 따라 소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 봄. 류대표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함.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를 시작해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용석 교수

- 화폐화 가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짧은 의견 부탁 드림.

강동수 부사장

- 투자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천억을 버는 회사,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백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화폐화를 통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음.

류영재 대표

- Mainstream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 Market Share 등 화폐 단위가 있고 ESG 측정을 통해 Rating 하는 Agent들도 많이 존재함.
- 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들은 House별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서 Valuation된 ESG 점수를 Revaluation 하여 보정하는 것임. Mainstream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화폐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내재화 하고 있음.

김의형 원장

- 재무보고가 화폐화가 되는 것 때문에 비재무보고 화폐화도 많이 언급되는데 부정적임. 기본적으로 화폐화는 어렵고 어쩌면 안될 수도 있으며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분적으로만 될 수 있음. 재무보고는 측정하는 Category가 재무적인 손익 하나임. ESG는 전혀 다른 문제임. 사회, 환경, 고용 등 여러 Category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은 측정되고 어떤 것은 측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것도 있을 것임.
- ESG보고를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Factor들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오히려 기업의 보고는 지금처럼 Metrics로 보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그것을 자기 방법론으로 화폐화 환산 하거나 평가기관이 필요한 지표에 한해 화폐화하는 어프로치가 좋을 것 같음.

장지인 교수

- 화폐화는 ESG 정보를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 되더라도 기존의 재무정보와 통합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임. 화폐화가 된다면 어느 수단 보다도 ESG 정보를 Integration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비재무정보란 화폐화하지 못한 정보로 현재 회계기준에서 화폐화를 하지 못한 정보임.
- 인식 기준에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때 화폐로 측정 가능할 것인데 VBA의 시도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되는 화폐단위 측정을 하고 있었음. Contingent Valuation 등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IT 등 Tech도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Data를 조합해서 VBA 같은 Initiative에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 측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함.

[Talking Block 3. 향후 논의 전개 및 추진 방향성]

김의형 원장

- Consultation Paper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성공하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임. 표준화된 기준을 통한 ESG 보고 확산이 커질 것이고 ESG 정보가 표준화되고 다양해지면 투자하려는 펀드가 많아질 것임. 중요한 Global Agenda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하게 되는 것임.
- 여태 기업이 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고 서로 사용하는 Language가 달랐는데 이제는 사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 받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장지인 교수

- IFRS Global Standard 과정에서 한국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음. 광수근 교수가 재단 이사로 있고 멤버로 있던 서정우 교수도 여기 와있음. 한국의 역량이 많이 달라졌음. SK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Global Standard 과정에서 한국이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강동수 부사장

- VBA는 기업들의 Alliance임. 지금까지 민간, 정부 주도 Initiatives 중심에서 사용할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자의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대로 만들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임. 기업들이 Negative 환경 영향도 줄이겠지만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류영재 대표

- 먼저 논의를 누가 주도할 것 인가, 다음으로 논의기구 주도 하에 업의 성격과 Factor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Disclosure Guide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음.
- 논의 주체에서 Universal Owner들의 역할이 중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펀드 타입 별로 보면 70% 이상이 Endowment Fund임.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면 연금펀드들은 자동차 주식부터 생명보험주식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엑스트라 코스트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Asset Owner의 이익성은 훼손될 수 있음. Universal Owner들이 이런 면에서 목소리를 내야함.

친환경 옷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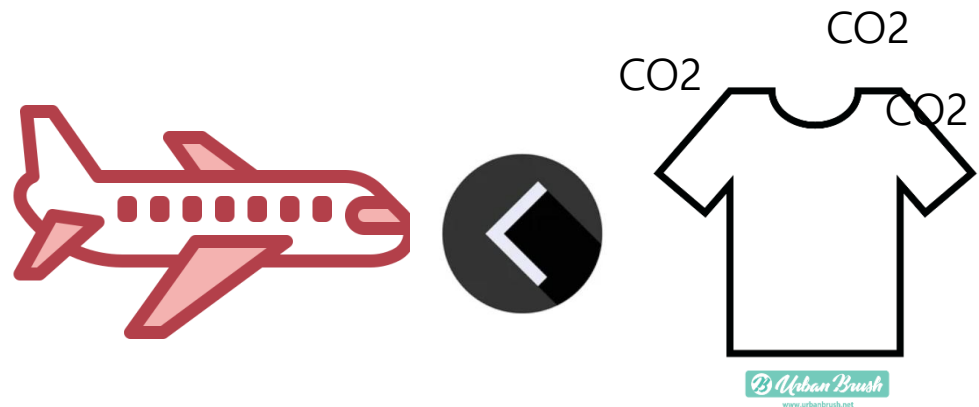
출처: 이소연 작가

"착취 없는 멋부림" 고민하는 제 크리에이티브 이새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OfmyNews*



- 우리는 매일 입는 옷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상태
- 하얀 티셔츠 1장 제작 시, 한 사람이 3년간 마시는 물의 양 필요, 탄소배출량 비교 시, 청바지 1개 제작 = 자동차 100km 이상 이동
- 전 세계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패션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 더 多



더 큰 문제는 옷 소비를 부추기는 기만적인 패션산업과 합성섬유로 만든 옷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고 하지않는 한국 사회 분위기

- 패션업계에선 화학물질을 사용해 실이 더 잘 끊어지게 제조 -> 사실상 일회용품
- 이들이 만들어 낸 유행은 '패스트패션', '울트라 패스트패션' 을 넘어선 **리얼타임패션**
- 영국 쇼핑몰 아소스(asos)에선 매주 450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
- 양산된 옷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은 세탁 시 하수로 흘러가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몸속에 축적



이소연 작가,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타일도 환경도 놓치고 싶지 않은
5년 차 탈쇼핑중독자의 제로웨이스트 의생활!



- 옷을 사지 않겠다는 선언은 개인의 소비 성향 문제가 아닌 패션산업과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고발
- 한때 디자이너를 꿈꿀 정도로 옷에 '진심'
- 과거 '매일 숨 쉬듯' 옷을 '사냥'

Q.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

- 쇼핑을 좋아해 서울 지하상가를 넘어 ‘세일의 나라’ 미국에서 숨 쉬듯 매일 옷 구매
- 1.5달러짜리 방글라데시산 패딩을 발견 이후, 옷 산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의문
- 옷 산업에 대해 알아가며, 2019년 초여름부터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

Q. 옷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멋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 처음, 사회적 가치를 이유로 멋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
- 유행이 만든 기준에 따라 트렌디한 옷을 멋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 멋부림의 정의를 내가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

Q. 책에 나온 ‘착취 없는 멋부림’이란 표현이 인상 깊다.

- 멋부림은 중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그 안에 온갖 착취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옷
을 소비하여
내 멋을 구성하고 싶지 않아짐
- 책을 쓰며 디자이너, MD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유행이
돈 벌려고 만든 허상임을 지각

Q. ‘고기를 먹지 말자’는 주장보다는
동물에게 뭘 먹이고 어떻게 키워서 도축하는지를 알게되면
자연스럽게 고기를 덜 먹게 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 옷을 안 사는 팁을 소개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개
- 새로운 옷을 새로 사기보다는 지금 옷장 속 옷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하는 게 지구에 덜 해로운 방식
- 청바지를 염색시킨 폐수가 바다에 퍼지고, 귀여워하는 동물이 옷
의
원재료로 쓰이는 등 비윤리적 환경에 놓인다는 걸 알게된다면
소비습관을 돌아보게 될 것

**Q. 선진국에서 버린 ‘의류 쓰레기’를 결국 개도국에서
불에 태우고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 의류는 합성섬유-> 소각장에서 타는 것도 위험하지만 결국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
- 의류 쓰레기를 수입한 나라의 어부는 배를 타고 점점 더 멀리 고기를 잡으러 나감 (육지 근처에는 버려진 옷이 잡힘)
- 바다는 지구생태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음

Q.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SSCS. Sea Sheperd Conservation Society 2)에선 언제부터 활동했나?



-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2019년 초겨울부터 활동
-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자격증 취득
후 수중 청소, 수중 정화
- 바다에는 감시자가 없어 고기를 잡으
며 버리는 쓰레기, 해군이 버리는 쓰레
기 다수

▲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페어구를 끌어올리는 시셰퍼드 활동 © 이소연

Q.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너무 엄격하지 말 것 (내가 너무 힘들)
- 친구들이 쇼핑몰 가자하면 간다 (주변에 좋은 영향 X)
- 온 세상이 소비를 부추기지만 하나라도 작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희망

Q. 옷을 사는 재미는 사라지겠다.

- 옷을 교환하며 새로운 재미 발견
- 어디에서 샀고, 이 옷을 입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며
옷을 전달 -> 소비자로서 옷을 살 때와 다른 차원의 재미
- 동료가 준 옷을 받으면 그 옷을 입고 인터뷰 할 때마다
그 동료에게 연락 -> 소중한지고 물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

Q. 옷 교환 관련해 어떤 모임이 있는 지 추천해달라

- 다시입다연구소의 '21%파티': 입지 않는 옷 5벌을 내고 5벌을 받아 올 수 있음 (옷, 귀걸이, 가방, 액세서리 등)



- 뉴스펭귄, 그랜드코리아레저 공동주최 '나눔옷장':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부 받은 옷을 선별해서 판매

Q. 개인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옷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패션산업을 보면서 이러한 활동을 기후범죄로 규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더 규모 있는 전환을 만들어야 할 주체는 기업,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
- 죄책감과 책임은 개인의 몫이 아닌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 낸 기업의 부담
- 유럽연합(EU)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RP 3): 기업은 원래 판매까지만 책임졌지만 이제는 유통과 폐기 과정까지 책임 확대

Q1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폐기물을 줄이는 기업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Q2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업

Q3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이사회 다양성이 높은 기업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Q4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이사회 다양성이 높은 기업

Q5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장애인 비율이 높은 기업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Q6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폐기물을 줄이는 기업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Q7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반부패에 힘쓰는 기업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는 기업

Q8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반부패에 힘쓰는 기업

수질오염을 줄이는 기업

Q9



**다음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 | |
|--|--|
| 1 빈곤 종식
No Poverty |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ies |
| 2 기아퇴치
Zero Hunger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 3 건강한 삶의 보장 및 복지 증진
Good Health And Well-Being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Quality Education | 13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Climate Action |
| 5 성평등 달성과 인권 신장
Gender Equality | 14 해양자원의 보전
Life Below Water |
|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Clean Water And Sanitation |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Life On Land |
| 7 적절한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장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16 평화와 정의의 실현 및 책임감 있는 제도 구축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 강화
Partnerships For The Goals |
|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

#HelloGlobalGoals



Sanrio'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산리오의 사회공헌 활동

산리오는 창업 당시부터 '모두가 사이좋게'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난 수백 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전 세계에 행복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산리오는, 인권 존중, 지구 환경 보존, 어린이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 공헌에 관한 다양한 산리오의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을 독려하는 '#HelloGlobalGoals'의 추진을 손꼽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에서 채택된 17가지의 목표들을 일컫는다. 산리오의 헬로키티가 '#HelloGlobalGoals' 활동을 통해 SDGs를 널리 알리고 이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Sanrio has considered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e most important, based on the corporate philosophy of "Getting Along Together" since its inception. Sanrio, which has a blissful influence on the world through hundreds of different characters born in its history, plays a role as influential company by selecting and solving global tasks, including respecting human rights, preserving Earth's environment, and improving children's education levels.

As one of representative social contribution of Sanrio's various activities #HelloGlobalGoals (SDGs), campaign has been actively promoted since 2019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is campaign encourages the realiz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refer to the 17 goal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with the aim of creating a better world. Sanrio's Hello Kitty is contributing to promoting and attributing awareness of the SDGs through the "#HelloGlobalGoals" activities.



헬로키티가 지닌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으려면 남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두 번째, 헬로키티의 리본은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

세 번째, 입이 없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

Three messages in Hello Kitty

First, you should be loved, and you need to be nice to others to be loved.

Second, the ribbon represents human connections. We should get along with one another.

Third, having no mouth means we need to express with our actions not only by words.

Sanrio'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산리오 나카요쿠 프로젝트

'산리오 나카요쿠 프로젝트 Sanrio Nakayoku Project' 또한 산리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이다. '나카요쿠'는 '사이좋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헬로키티는 전 세계의 병원, 재해 지역 등을 방문하여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행복을 전달하는 활동(Sanrio Character Aid)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리오는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부를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고 관리를 통해 폐기되는 상품의 수량을 감축하고자 하며,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하거나 골판지를 재사용하는 등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anrio Nakayoku Project' is also one of Sanrio's representativ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Nakayoku translates to "Getting Along Together." As part of this project, Hello Kitty spreads smiles and joy to people suffering from diseases or disabilities by visiting hospitals and devastated areas worldwide to carry out Sanrio Character Aid. Moreover, Sanrio engages in continuous volunteer activities to assist diverse individuals facing challenges globally and contribute donations to countless people around the world in need of help. "Furthermore, Sanrio is dedicated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naging inventory to minimize the quantity of discarded products. Additionally, Sanrio trie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by utilizing eco-friendly packaging materials or promoting the reuse of cardboar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The 8th
Corporate Volunteer Awards
제8회 기업 волон터 어워드
대상 수상
Grand Prize Winner

Hygiene development activities
using Hello Kitty's hand washing
video in India.

*JICA 인도사무소와 함께 진행
활동 누계 참가자 수 900,812명
(*2023년 10월 말 현재)

손 씻기 영상 재생수 835만 회
(*영리 비영리-원두어 비영리 함께, 2023년 10월 말 현재)

900,812 active participants
As of the end of October 2023
8.35 million views of the handwashing video
(*영리 비영리-원두어 비영리 함께, 2023년 10월 말 현재)

Overseas activities

해외 활동

8개국의 해외거점과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

Carry out global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ith overseas bases in 8 countries.

2022년도
모금기부총액
2,321,833엔

Total amount of fundraising donations for
2022 2,321,833 Japanese Yen

Sanrio Character Aid

산리오 캐릭터 활동

20년 이상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누계 170회 이상 실시!
2만 명 이상에게 행복을 전달하였습니다。

Going on for more than 20 years and has been carried
out more than 170 times!
Delivered happiness to more than
20,000 people.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사회에 필요한 기업은?”

ESG 항목별 제시된 선택항

E

-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업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 폐기물을 줄이는 기업
- 수질오염을 줄이는 기업

- 장애인 비율이 높은 기업
-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기업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S

G

- 이사회 다양성이 높은 기업
- 반부패에 힘쓰는 기업
- 정보 공개를 잘하는 기업
- 성과평가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
-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는 기업

강의 목표

1. ESG 관리 목표를 재정립 할 수 있다.
2. 국제 ESG 규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 ESG 공시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회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5. 우리 조직(기업)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 방안을 기획할 수 있다.
6. S 1,2,3 의 개념을 이해하고 산정할 수 있다.
7. ESG 중 인권,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8. 공급망 ESG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9. 다양한 감축 사례를 통하여 우리 조직(기업)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통상 사례

(2021년 7월/8월)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2. [세상읽기] EU의 탄소국경세와 제조업/황선준

1.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3674.html?fr=gg#cb>

2.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1700&key=20210802.22022000191>

기사내용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 '[피트 포 55\(Fit for 55\)](#)' 발표
- EU는 6월 28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기존 목표는 40%)로 상향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으로 명시한 기후기본법 제정
- '[피트 포 55\(Fit for 55\)](#)'는 6월 제정된 기후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조치
- 발표된 총 12개의 법안은 제조업, 에너지, 운송 부문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다룸

-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 산업계와 연관 있는 법안
-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과 감축을 못한 기업 사이에 탄소배출권을 팔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 EU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으로 활용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과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차이를 돈으로 보전하는 제도
- 탄소국경제도는 추가 관세 기능(탄소국경세)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는 역할을 함**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 2020년 기준 EU 27개국과 한국의 교역량은 1116억 3000만 달러
- 수출: 521억 4400만 달러, 수입: 594억 8700만 달러
- 수출액 규모로 EU는 중국(1325억 5500만 달러), 미국(741억 5900만 달러)에 이어 3번째
- 對EU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선박용 부품, 2차 전지 등
- 탄소국경제도 대상 품목인 철강 수출은 2020년 221만여톤, 알루미늄은 5만 2000여톤
- 앞으로 대상 제품이 확대될 경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분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 有

기사내용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 철강 · 선박운송

- 한국 철강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당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 국내에서 철강 1톤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2톤 정도
- 유럽(철강 1톤 당 1.7~1.8톤)보다는 많은 양이지만, 국내 생산과정에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했다면 이에 대한 감면을 EU측에 요청 가능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회피해 러시아, 터키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도 존재
- 유럽과 한국 모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훨씬 강력한 탈탄소 원칙을 적용하는 유럽의 배출권 가격(14일 기준 톤당 약 52유로·7만219원)이 한국(톤당 2만1200원)보다 비싸게 거래중
- 유럽과 한국을 잇는 화물선이 배출권 거래 비용을 치르게 되면 물동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수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됨

기사내용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 자동차

- 유럽지역 한국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
-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유럽 내 휘발유 · 경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
- 2017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의 수출이 감소하고 전기차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수출액 (45억 9800만 달러)이 전기차(26억 1100만 달러)를 앞서는 상황
- 현대차, 유럽의 탄소 규제를 자동차 분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상황을 예의주시 중

기사내용

1. 유럽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한국기업에는 “입에 쓴 보약”

◆ 정부 · 기업 대책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피트 포 55' 발표 후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 중,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 · 관 · 학 협의 채널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
- 문승욱 산업부 장관, 7월 6일 티메르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에게 “이번 발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 는 뜻 전달
-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알루미늄 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 등 기업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
- 현재 '피트 포 55'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 유럽연합 규제 수준이 후퇴할 가능성, 탄소 감축 대비가 북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의 반발 가능성 有
- 한편, 수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2023년 시행되는 순간부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스웨덴 철강기업 SSAB, 세계 최초의 '화석연료제로철' 생산 선언
- Volvo, Scania, '화석연료제로철'로 자동차, 트럭, 중장비 차량 생산 선언
- 스웨덴 정부연구조사위원회, 2030년까지 신형 화석연료(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자동차 판매 금지 및 2040년 화석 연료 판매 금지 제안
- BUT 스웨덴의 목표가 스웨덴 생산재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은 반영하지 않아 기후목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3 정도만 반영되었다는 비판 존재

-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 발표
-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이전의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이후 적용해온 탄소배출 및 매매 가격 인상
- 2035년, 신형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 금지
- **'탄소국경세(CBAM)' 도입으로 한국 제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탄소국경세:** 1차적으로 2023년에 철강 등 5개 분야에, 2026년에는 모든 품목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EU 기업이 EU기후목표에 준하여 생산할 때 드는 추가비용 부분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것
- **탄소국경세의 목적:** EU 밖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게 하고, EU 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기후위기 대책으로 손해를 보거나 EU 기업들이 탄소세가 약한 나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경제에 크게 의존하며, '기후악당' 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
- 2026년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국경세가 매년 3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한 해 전체 영업이익에 해당될 것이라는 분석
- 미국도 EU와 같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철강을 필두로 한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통상 인사이슈

2021. 07. 13호



WTO개혁에서 탄소배출규제까지 EU와 통상의 핫이슈 심층논의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WTO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 주요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CBAM이

- 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 ②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 ③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통상 사례 (2021년 7월 13일)

산업부, EU와 통상 핫이슈 심층논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ongsangnews&logNo=222430351403&proxyReferer=http:%2F%2Fm.facebook.com%2F>

주요내용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 지난 7월 5일 ~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벨기에 브뤼셀 방문
- 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
-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등 관련 논의
-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WTO 중심의 다자 질서 회복의 중요성 강조 +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연장됨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지속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
-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① EU 탄소국경제도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②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③ 배출권거래제(ETS)등 탄소배출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탄소국경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탄소국경제도의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을 전달

기사내용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7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5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7. 5. (월)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정경록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유형규 사무관(044-203-4874)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 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 7월 7일(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논의함.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함.

○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함.

□ 한편,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또한,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함.

* EU는 CBAM 법안을 7.14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형규 사무관(☎ 044-203-4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례 (2021년 11월 4일)

'탄소' 관세, 국제 산업 질서 재편할까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6275&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1. '탄소' 관세, 국제 산업 질서 재편할까

- 미국, 유럽, 및 기타 선진국들은 이른바 '탄소' 관세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실험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상업 규칙이 재설정 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철강과 화학, 시멘트 분야에 탄소 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생산자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해당 업계의 미국 기업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주 유럽연합(EU)과 탄소 배출 수준이 높은 철강 상품의 수입을 공동으로 억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초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 국경 조정 제도라고도 하는 탄소 관세는 국내 탄소 저감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임. 탄소 관세의 위험은 일반적인 무역 장벽과 유사하며, 생산 비용 및 가격 상승이 구매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세계 무역 규정의 훼손과 무역 분쟁이 촉발될 수 있음.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음.

1. '탄소' 관세, 국제 산업 질서 재편할까

- 케이지엠앤더어소시에이트(KGM&Associates)와 글로벌효율지능(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 가스의 약 1/4이 국경을 넘는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했음. 동 보고서는 선진국들 다수가 감축했다고 주장하는 탄소 배출은 사실상 개도국에 아웃소싱된 것이라고 언급했음.
-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탄소 관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 상대국의 탄소 배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각국이 온실 가스 저감 계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아이디어에 다시 힘이 실렸음.
- 미국과 EU가 발표한 계획은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탄소 배출이 많은 방식으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 등의 국가에서 생산된 '더러운 철강'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덤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EU는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캐나다 정부도 유사한 계획을 모색하기 시작했음.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십여 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상품의 탄소세와 연계된 탄소 관세에 관한 것이 많았음.

1. '탄소' 관세, 국제 산업 질서 재편할까

-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는 작년 EU의 CBAM 관련 보고서에서 탄소 관세가 국경 간 경쟁 우위를 빠르게 재편할 것이라며,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더욱 효율적인 제철소를 보유한 캐나다와 한국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고 전망했음.
- 기후 리더십 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는 미국 내 금속, 화학, 전자 및 자동차 생산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평균의 40% 미만이라며, 미국이 탄소 관세를 시행하면 철강 업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아시아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보다 탄소 배출량이 50~100% 많기 때문에 1톤 당 탄소 관세 43달러 부과 시, 미국의 철강 수입이 절반으로 줄고 중국 등 탄소 효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는 수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탄소 관세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동 관세가 기후 규정의 필요성에 회의적이고 비용을 걱정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동 관세는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위협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반면 제지업체, 귀금속, 전자 등 1차 가공(semi-manufactured) 금속을 사용하는 업체 등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결과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임.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비용을 흡수하는 방법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1. '탄소' 관세, 국제 산업 질서 재편할까

-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탄소 관세가 글로벌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음. 일례로, 유럽 알루미늄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중국이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알루미늄 유럽에 수출해 탄소 관세를 회피하고 석탄으로 생산한 상품을 아시아에 유통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한 탄소 관세는 잠재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세계 무역 규정은 국경간 조정은 허용하지만 수입품과의 경쟁 차단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상품에 내재된 탄소를 수량화하는 방식에 관한 국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은 악화되고 있음. 원자재 채굴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는 전체 탄소 발자국을 포함시킬지에 관한 합의도 없는 상황임.
- 미국에서 탄소 가격 제도에 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민주당은 관련 제도에서 발생하는 미국 기업의 내재적 비용을 계산하여 동등한 비용을 해외 경쟁업체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음.
- 지금까지 각국이 친환경 공약과 자유 무역 의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 2016년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등 탄소 배출 저감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관세 및 쿼터를 폐지하려는 WTO의 글로벌 합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작년 11월 WTO 시장접근위원회(market access committee) 회의에서는 19개 가입국 관계자들이 EU의 CBAM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음.
- 여기에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탄소 관세는 글로벌 협력 강화보다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통상 사례 (2021년 10월 19일)

무역협정, 기후 변화 해결 가능할까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5745&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2. 무역협정, 기후 변화 해결 가능할까

- 기후 변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역협정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론적으로, 상품 무역의 경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무역 정책이 필요하지 않음. 단순히 상품 생산에 탄소 배출 가격을 책정하고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운송한 이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됨.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발 및 시행에서 볼 수 있듯, 통일된 탄소 가격 책정은 물론 각국의 내재된 배출 가격 산정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EU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무역 협정에서 환경 조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파트너 국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불분명하며, 탄소 배출에 관한 상세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포함시키기 어려움. 일례로, EU는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 파괴에 관한 부속 협정 체결 시까지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무역 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제안조차 하지 못했음.
-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다자주의 포럼에서 통상장관들의 기후 변화 해결 노력이 미진했다고 평가했음. 동 연구소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연합(UN)에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각료회의 구조 창설을 촉구했음.
- 한편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올해 WTO 각료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합동 각료 선언문을 주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상호 혜택을 보장하지 않아 참여를 꺼리는 국가들을 독려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임.
- 다자주의 무역 기구 전체, 특히 WTO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 국장은 특히 각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무역정책의 기후변화 해결 가능성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음.



통상 사례 (2021년 11월 8일)

[기고]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 WTO 분쟁 해결에서 다룰 가능성 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6350&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3. [기고]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 WTO 분쟁 해결에서 다룰 가능성 커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전체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 무역에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 대응책의 정당성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WTO 무역 분쟁이 점차 임박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합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탄소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동 관세는 전 세계 최초의 탄소 관련 무역 규제이며, 미국이나 EU는 중국보다 탄소 집약도가 훨씬 낮은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동 관세 이전에는 EU가 이와 유사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도 유사한 무역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기후 관련 무역 규제의 합법성과 WTO의 동 규제 지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기후 협상에서 국가의 정당한 기후 대응 정책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임.

3. [기고]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 WTO 분쟁 해결에서 다룰 가능성 커

- 이러한 정의 없이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 법적 확실성이 확보될 수 없음.
- 기후 문제에서 무역이 중심 주제는 아니었지만, 동 협상에서는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책과 무역 및 무역법의 관계가 국제법에 미칠 영향을 직접 다루기를 주저해 왔음. 하지만 조만간 각국이 기후 대응 약속을 이행하고 인력과 생산시설의 탄소 유출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에 나서기 시작하면 WTO에서 동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WTO 조약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기후 협상에서 정당한 대응책의 정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파리기후협약과 WTO에 동시에 가입한 164개국의 경우 허용되는 국가 기후 대응책을 정의하는 작업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됨.

통상 사례 (2021년 7월 18일)

"화석연료 그만 써라"..

EU, 韓 기업에 '연 1조원' 청구서

<https://news.v.daum.net/v/20210718110055912>

기사내용

"화석연료 그만 써라"..EU, 韓 기업에 '연 1조원' 청구서



우르줄라 폰데 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EU,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 선언
- 국내 산업계 비상, 철강·알루미늄·전기·시멘트·비료 등 5개 업계가 2026년부터 EU에 내야 할 탄소국경세만 한 해 4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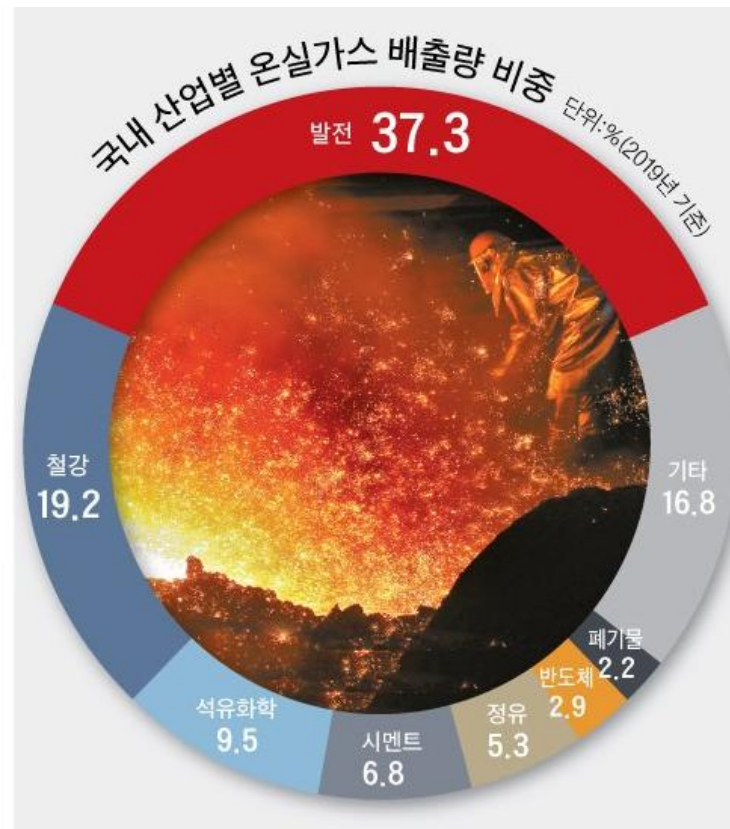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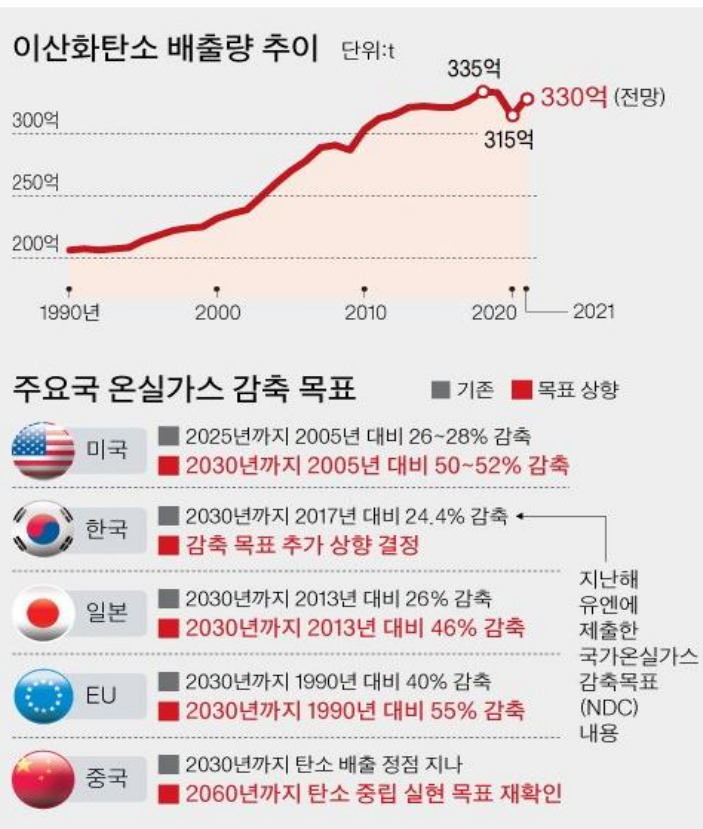
기사내용

"화석연료 그만 써라"..EU, 韓 기업에 '연 1조원' 청구서

- 지난 7월 15일,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탈 탄소 정책 '유럽 그린딜'의 핵심 법안을 담은 ['피트 포55\(Fit For 55\)'](#) 발표
- [피트 포 55 주요 내용](#):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로 감축. 이를 위해 유럽 연합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며 이는 2026년부터 본격 도입
- 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규모: 2020년 기준 유럽연합에 수출한 **철강 제품**은 221만3680만 톤, 금액으로 15억2300만 달러(1조7000억원) 수준, **알루미늄**은 1억8600만 달러(2100억원) 규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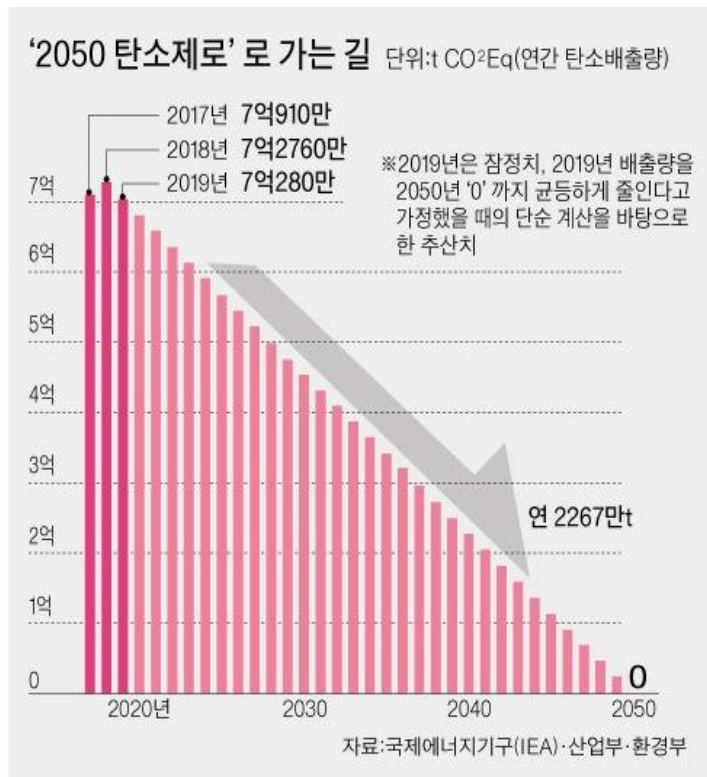
기사내용

"화석연료 그만 써라"..EU, 韓 기업에 '연 1조원' 청구서



기사내용

"화석연료 그만 써라"..EU, 韓 기업에 '연 1조원' 청구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6년부터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 (약 1조 22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
- EU 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변수 존재
- EU의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될지 의문이 많은 현 상황
- 美 바이든도 대선 공약으로 탄소국경세를 지지했지만, EU가 탄소국경세로 연 90억 유로(약 12조원)를 수출국에게 걷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
-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은 사실

-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 발표
-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이전의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이후 적용해온 탄소배출 및 매매 가격 인상
- 2035년, 신형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 금지
- **'탄소국경세(CBAM)' 도입으로 한국 제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탄소국경세:** 1차적으로 2023년에 철강 등 5개 분야에, 2026년에는 모든 품목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EU 기업이 EU기후목표에 준하여 생산할 때 드는 추가비용 부분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것
- **탄소국경세의 목적:** EU 밖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게 하고, EU 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기후위기 대책으로 손해를 보거나 EU 기업들이 탄소세가 약한 나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경제에 크게 의존하며, '기후악당' 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
- 2026년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국경세가 매년 3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한 해 전체 영업이익에 해당될 것이라는 분석
- 미국도 EU와 같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철강을 필두로 한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전망

린노알미늄(주) 소개





새로운 미래 창조

Discover the principles behind our vision of the future.

모두를 위한 경제, E^oC

EoC : Economy of Communion

Vision 2030

린노알미늄의 미래 비전을
규정하는 기본 원칙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 입니다.



PRODUCT INFORMATION

- EV components
- Parts of Automobile

RINO

ALUMI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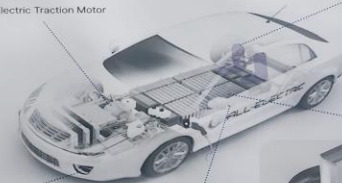
EV components



Electric Traction Motor



Vertical Brace
For Back Seat



Battery Mounting
Bracket



Heat Tank



Battery Tray

Rinno's customers worldwide

"Everyone is Invited. Let's pioneer to the world"



회사소개

회사정보

연혁

주요거래처

린노알미늄
회사정보



회사명

린노알미늄(주)



CEO

이세영



설립일

2009년 6월 1일



주소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201



대표전화

052-707-5001



팩스

052-707-5002



사업영역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
알루미늄 압출품

회사소개

회사정보

연혁

주요거래처

2009 05 린노알미늄 주식회사 설립(울산 소재)

2007 04 스타기업 선정(경남지식센터)

2006 08 (주)삼우 EMC 기술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4 INNO-BIZ 기업인증획득 (중소기업청)

2005 06 유망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은행)
02 IATF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4 05 승용차용 RUBBER BUSH CORE 생산

2003 01 알루미늄 압출라인 신설 : 압출 품 생산

2001 1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ISO 9001)

1996 12 (주)삼우엔지니어링 법인 설립

1995 08 대우 버스제품 생산시작 (유리 물딩과 버스창호제작)

1988 01 삼우엔지니어링 설립 (부산 감전동 소재)

2014 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청)

06 유망중소기업 선정(울산테크노파크)

04 중소기업 우수기술인상(중소기업청)

03 KS인증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제)

03 IP스타기업 인증

2013 12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12 신규수출 우수기업 수상

11 병역지정업체 선정

10 으뜸기업 인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10 소재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09 취업하기좋은기업 인증

02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 생산

2012 09 유망중소기업선정

2011 12 우수중소기업인상 (중소기업청)

2010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선정

05 린노알미늄(주) 기술연구소 설립(KOITA)

2022 04 울산광역시 올해 기업인상 (대한민국 정부)

2021 12 제 58회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12 경상북도 교육감 감사패 (경상북도 교육청)

04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9 12 제 56회 무역의 날 7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8 09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울산광역시)

2017 12 제 54회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16 09 한국산업기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5 09 생산성 강소기업 부분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05 한국전기문화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04 우수기업경영인상 (울산경제진흥원)

회사소개

회사정보

연혁

주요거래처



VIKING PRODUCTS INC



HUTCHINSON ANTIVIBRATION



(주)태정기공



반도스틸(주)



KOIDE KOKAN CO., LTD.



(주)한국몰드



(주)세명기업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품 사진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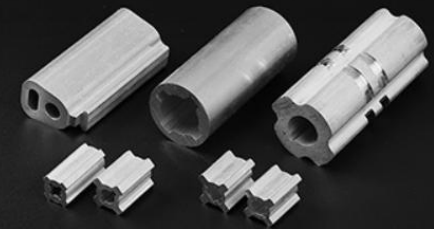
프레임

전기 자동차용 고강도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
개발 및 양산



브라켓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우수한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 개발 및 양산



이너(INNER)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우수한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 개발 및 양산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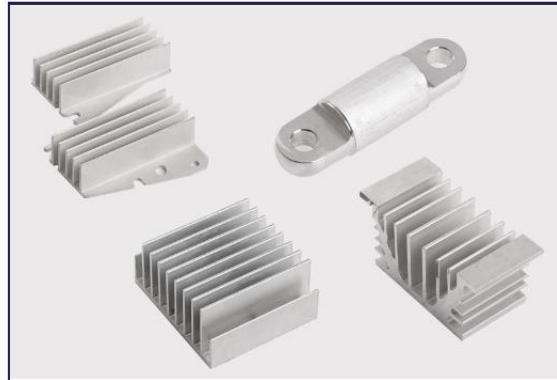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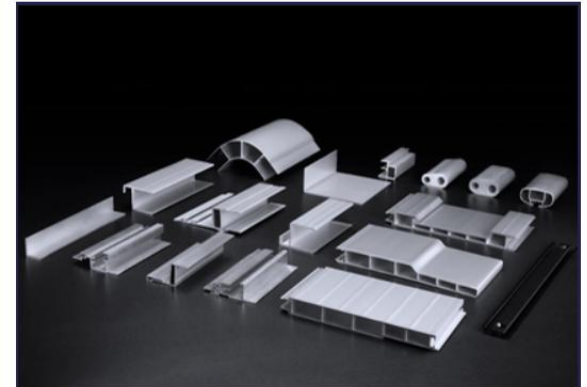
라바부쉬

고기능 자동차 부품인 Aluminum RUBBER BUSH 부품의 개발 및 양산



모터 부품 및 기타 부품

전기 자동차용 고강도 초경량 알루미늄 부품 개발 및 양산



외장용

알루미늄 WINDOW SYSTEM의 가공, 조립분야, 자동차 부품 분야 등에 최고의 기술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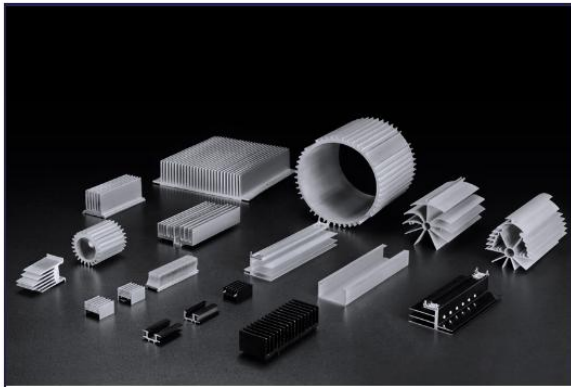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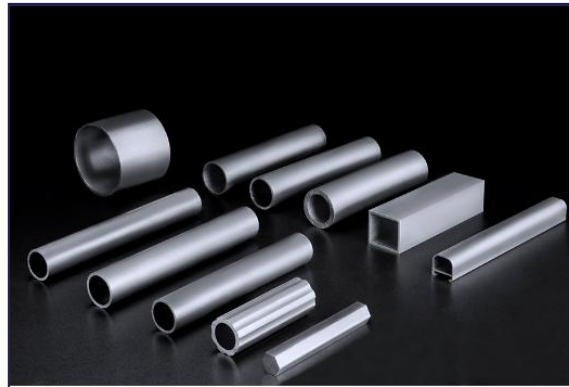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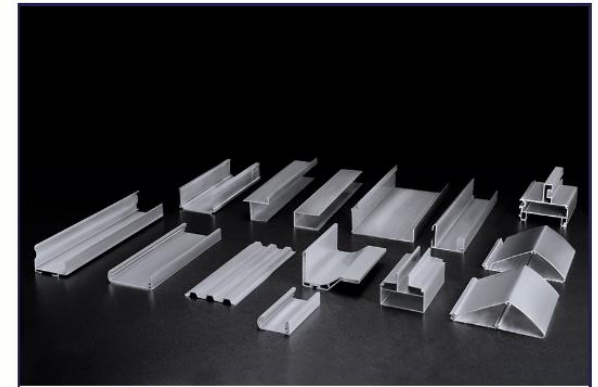
히트싱크류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파이프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구조물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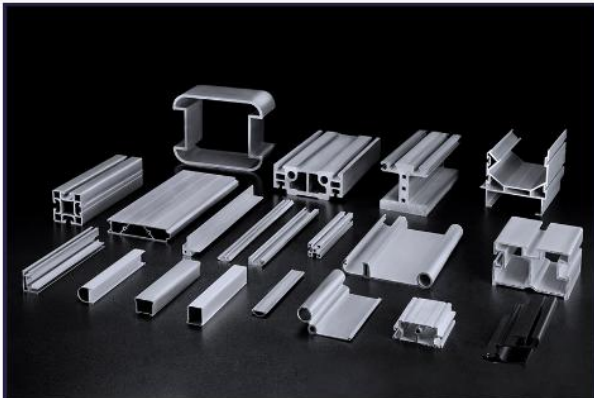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타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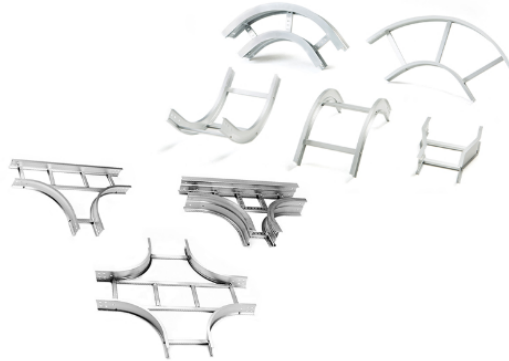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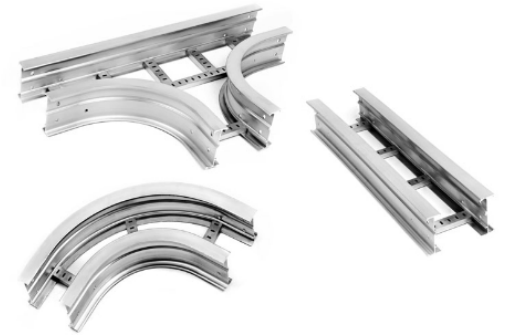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Cable Ladder(tray) Fittings

알루미늄 케이블트레이는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알루미늄 소재 전반에 걸친 압출, 가공, 벤딩, 조립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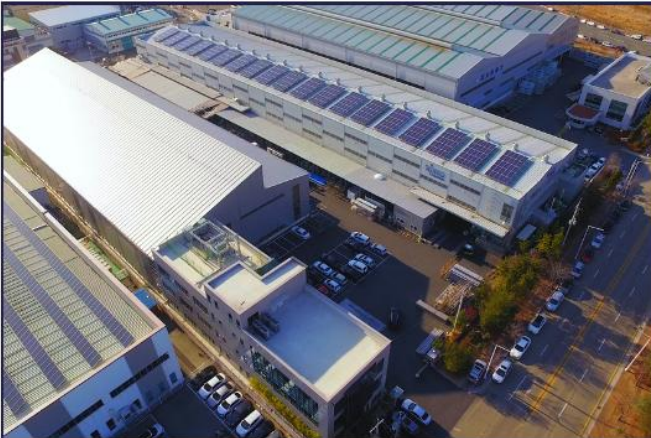
Products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용소재

케이블트레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린노알미늄(주)
RINNO ALUMINUM Co., Ltd.
Since 1988



RINNO 무지개 프로젝트
ALUMINUM

빨강 RED : 재화를 통해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한다.
(Internal operations : Transparency and sharing)

주황 ORANGE : 우리가 하는 일이 고객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External relationships : Love is a source of light)

노랑 YELLOW : 법률과 윤리 기준을 지킨다.
(High integrity, Cooperate values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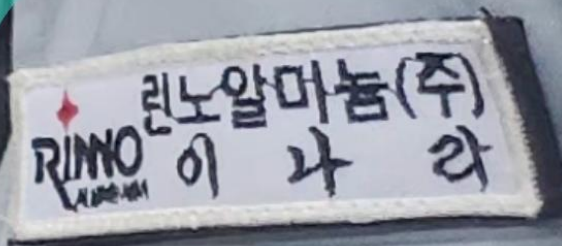
초록 GREEN : 정직한 기술과 환경보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Quality of life and the environment)

파랑 BLUE :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다.
(Harmony in the work environment)

남색 NAVY :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High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보라 VIOLET : 린노 한 가족으로 생각의 일치와 소통을 이룬다.
(Communication)





환경 신호등



1. 일회용품은 No!
2. 음식물 조리과 주문은 먹을 만큼만
3. 재활용 쓰레기는 비우고, 헹구고, 구분해서 분리배출
4. 환경 보호는 생활 속 대화와 권유로 이웃과 함께^^
5. 패트병 사용은 Down ↓↓
6. 충동구매 자제하여 그린 소비를
7.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 1 (나만의 특별한 환경 신호등)

새인류 신호등



- 1 STOP! TIME OUT 12:00
- 2 손수건, 개인 컵! 너 나의 친구
- 3 비난 대신 기도를
- 4 잠자는 동전! 어려운 이웃을 위해
- 5 나부터 선플 달기
- 6 우리 동네 신문 읽기
- 7 사랑으로 민원하기
- 8 한뼘 텃밭, 도시 텃밭 가꾸기
- 9 다른 신문 하나 더...
- 10 매월 14일, 냉장고 재고 파악



Spain Bilbao시의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스페인 생분해봉투/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 스페인 Barcelona의 역시 지구는 Mater-Bi 생분해봉투(Novamont)를 사용하여 유기 폐기물 분리 수거를 시작
 - ✓ Sarrià-Sant "Asociación de Vecinos de Sarrià"협회가 추진하는 방문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 ✓ 유기성폐자원 수거 전용 생분해봉투에 대한 인식 제고
 - ✓ 궁극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전체로 확대 예정



생분해봉투 사용 홍보 이미지



<생분해 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카드 태그>